1. 농업정책

□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주체농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 비배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진행하여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내도록 하고 있음.

□ 농업정책

○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로동신문 8.3)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함.

- 서해벌방농촌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농작물비배관리에 앞장서고 있음. 특히 룡천벌과 운전벌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농촌에서 앞장서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은 포전상태에 맞게 김매기계획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논밭 5회 김매기를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끝냄.

○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로동신문 8.4)

- 김정일은 “농업근로자를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조직 동원을 하는 것은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라고 말함.

-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올해 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기 위한 근본열쇠의 하나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발동에서 찾고 협동벌에 내려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역할을 잘해 나가고 있는 농근맹일군을 적극 내세워주면

서 그들을 모범삼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농업관리

○ 중요강하천에서의 큰물피해방지사업 강화(로동신문 8.1)

· 각지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강하천관리에 힘을 쏟으며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김정일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국토를 보호하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라고 말함.

·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대동강과 청천강을 비롯한 중요강하천에서 큰물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를 조사확정한데 기초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10여개의 중요 강하천 지역에서 수만㎥의 토량처리, 수만㎡의 장석공사, 1만 수천㎥의 돌넣기 사업을 실시하여 수십리 구간의 제방을 보수하였음.

· 호안림조성과 타래붓꽃심기를 통하여 큰물로부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각지 강하천관리소에서는 많은 양의 평양포플러나무모를 생산하여 최근 몇 달 동안 300여 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고 70여 정보의 면적에 타래붓꽃을 심었음.

2. 벼농사

□ 가을걷이

○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8.21)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 들이고 탈곡도 빨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한해농사에서 가을걷이준비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사업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여 농기계수리와 부속품 생산을 계획대로 하여 끝내는데 힘을 쏟고 있음.

· 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탈곡장 보수와 농기계수리정비, 중소농기구준비를 빨리 끝내고 있음.

○ 가을걷이준비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8.28)

· 황해남도안의 농촌에서는 각종 소농기구와 탈곡기, 운반수단을 수리, 정비하는 등의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음.

· 김정일은 “가을걷이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은률군은 벼종합탈곡기와 강냉이탈곡기 등 각종 탈곡기수리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수리공을 각 협동농장에 보내어 협동농장의 탈곡기 수리정비를 돕고 있음.

· 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탈곡장과 강냉이 저장고 보수 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밭농사

□ 콩농사

○ 콩밭비배관리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8.2)

· 갑산군 삼일협동농장에서 농장자체에서 생산이용하고 있는 효능이 높은 식물성농약이 콩농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음.

· 김정일은 “농약문제를 풀어야 콩을 재배하는데서 병충해를 막고 콩농사를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함.

· 이들이 만든 식물성농약은 원료가 풍부하고 품이 적게 들어 좋음. 식물성농약의 원료로는 흔한 식물들이 이용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 또한 있음.

· 농장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식물성농약의 우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그들이 생산이용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

○ 콩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8.28)

· 김정일은 “콩농사는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다할 수 있다.”, “콩농사를 잘하면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문제가 풀린다.”라고 말함.

· 창성군에서는 올해 군당위원회의 지도아래 콩농사를 실속있게 지도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였음.

· 금야협동농장,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모든 포전들을 알뜰히 가꾸어서 무더기비가 와도 물이 제때 빠지도록 하고 있으며, 콩 한포기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음.

· 화평군에서는 부남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모든 협동농장에서 콩밭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 백두삼천리에서 감자캐기 시작(로동신문 8.3)

· 김정일은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대홍단군이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라고 말함.

·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트랙터와 감자종합수확기에 대한 수리정비를 미리부터 잘해놓고 모든 역량을 포전에 집중하여 감자캐기를 해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군들은 미리부터 군감자수송대와 군안의 감자가공기지들에 나가 화물자동차들과 가공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음.

· 농사동, 창평, 홍암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캐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외 신덕, 삼봉, 서두, 신흥농장에서도 일정계획에 맞춰 감자캐기를 진행하고 있음.

5. 농업기반

□ 물길공사

○ 물길굴공사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로동신문 8.3)

· 례성강 청년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물길굴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황해북도청년돌격대원과 건설자들이 물길굴공사장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음.

· 은파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수백m에 달하는 2호물길굴공사를 끝냈음.

· 평산대대 청년돌격대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면서 굴뚫기를 하고 콘크리트치기를 계획대로 하여 3호물길굴공사를 완공함.

· 도탐사관리국대대 돌격대원들도 4호물길굴공사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기본물길굴뚫기에서 높은 실적 기록(로동신문 8.4)

· 가장 힘든 건설대상의 하나인 물길굴공사를 맡은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7월말 현재 작업갱공사실적을 70%계선에 끌어올리는 업적을 달성하였음.

· 특히 이들은 얼마 전 3개소의 작업갱굴진을 끝내고 여러 개소의 기본수로굴진에 진입함으로써 기본물길굴뚫기계획을 20%이상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불과 4개월 동안의 어렵고 방대한 작업갱공사를 앞세우고 기본수로굴진에서 대비

약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성과는 물길굴건설에 나선 전체 건설자들에게 희천발전소 건설을 앞당겨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음.

□ **간석지**

○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로동신문 8.9)

·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관리국의 일군과 건설자들은 3호방조제공사와 내부망 공사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3호방조제공사와 내부망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움.

· 수송을 담당한 다사기계화사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유압식굴착기와 자동차에 대한 점검보수작업을 실속있게 하여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막돌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6. 기타 보도 동향

□ **풀베기**

○ 각지 농촌에서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8.9)

· 농업근로자의 힘으로 전국적인 올해 풀베기계획이 50% 이상 수행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 실적보다 115% 늘어남.

· 황해북도가 제일 많은 풀을 베었음. 사리원시, 린산, 신평, 곡산군 등 도내 농업근로자들은 유기질 함량이 많은 적기에 풀베기실적을 부쩍 올릴 목표아래 풀원천이 풍부한 곳에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벌써 계획의 80%를 수행함.

· 만경대, 형제산구역, 상원군을 비롯한 평양시주변 각 농촌에서도 풀베기에 힘을 넣

어 매일 1만 톤 이상의 풀을 베고 있음. 자강도시, 황해남도 내 시, 군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은 풀을 베어들이었으며 평안남도와 강원도에서는 매일 8만 톤, 6만 톤 이상의 풀거름이 장만되고 있음.

○ 풀베기전투를 본때 있게(로동신문 8.10)

· 강원도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다음 해에 쓸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백만 톤의 풀을 베어들일 목표를 세우고 모든 시, 군에서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풀씨가 앉기 전에 더 많은 풀을 베어 기술적 요구대로 잘 썩히도록 하고 있음. 회양군, 판교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풀을 많이 베어 들이는 동시에 논밭의 최뚝, 수로뚝의 풀도 놓치지 않고 원천을 모두 찾아내어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각 농장에서는 농장별, 작업반별 풀베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농업근로자들이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특히 풀베기와 김매기가 겹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베어낸 풀을 그날로 운반하여 퇴적장에 쌓게 하고 있음.

○ 풀베기전투를 힘있게(로동신문 8.22)

· 김정일은 “7월과 8월은 풀베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 다음해농사를 잘 짓자면 풀거름을 많이 장만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의 각 농촌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풀베기실적은 요즘 하루에 근 10만 톤에 이르고 있음.

· 자강도안의 모든 시, 군에서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때보다 1.2배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황해북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풀베기전투를 중요한 공정으로 여기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음.

○ 풀베기계획 넘쳐 수행(로동신문 8.27)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함.

· 사회주의 경쟁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더 많은 풀을 베어 들여 올해 풀베기계획을 102.9%로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킴.

·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농근맹조직에서는 대중을 풀베기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풀베기에서는 서흥군, 황주군, 수안군이 앞서나가고 있으며 토산군과 곡산군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도 풀판마다 노동력을 집중하여 풀베기를 다그치고 있음.

□ 농기계

○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로동신문 8.7)

·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의 공장참모부서 일군들이 직장, 작업반에 나가 설비와 자재,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김정일은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 것과 함께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유도로와 용선로 등 주물품 생산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갖추어놓은 직장노동계급은 튼튼한 생산토대에 의거 이미 8종에 10여 가지 주물품을 생산 보장함.

· 소재직장, 조립직장 등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 떨쳐나연일 혁신하고 있음. 당 조직의 지도아래 공장에서는 능률적인 농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비료

○ 대용비료를 적극 생산이용(로동신문 8.6)

· 김정일은 “농업부문 일군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혁명적 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안의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대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작물비배관리에 적극 이용함으로써 좋은 작황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8배의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땅을 기름지게 걸구고 농작물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였음.

○ 집짐승배설물을 이용한 공업적인 유기질비료생산기술(로동신문 8.9)

· 집짐승배설물을 이용한 공업적인 유기질비료생산기술은 발효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에 집짐승배설물을 넣고 속성 발효시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집약적인 집짐승배설물처리기술임.

· 집짐승배설물은 비료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음.

· 자연 발효시켜 거름을 만드는 방법에 비해 생산면적을 줄이면서도 발효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음. 집짐승배설물이 자연적으로 발효되자면 45~60일 정도 걸리지만 공업적 방법에서는 길어도 25~30일, 짧은 경우 5~7일정도 걸린다고 함.

· 공업적으로 생산한 유기질비료는 악취와 유해물질이 없고, 손에 묻어나지 않아 운반과 시비에도 편리하다고 함. 이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집짐승배설물을 이용한 공업적인 유기질비료생산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 살림집

○ 평양시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자(로동신문 8.8)

· 김일성의 탄성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수도건설자들의 궐기모임이 7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음.

· 김정일은 이번에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시고 살림집구역도 확정해 주었으며 설계로부터 건설단계와 역량편성, 지휘체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취하였음.

· 김정일은 파국적인 세계경제위기로 많은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때에 한 도시에 10만 세대나 되는 살림집을 몇 해 사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게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 시책이라고 강조함.

· 김정일은 모든 건설자가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한 개의 블로크를 조립하고 한㎡의 미장을 해도 새 세기의 수도건설자답게 알뜰히 하여 10만 세대 살림집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없게 질적으로 건설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